

독학사 1단계 공략집 <영어>

독학사 1단계를 준비하려는 학생들에게 많은 걱정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. “난 영어 하나도 모르는데 어떡하지?”, “1단계 난이도가 어느 정도 될까?” 또는 “어느 정도의 시간 투자를 해야 통과할 수 있지?” 이렇게 말이다.

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에는 항상 이런저런 걱정, 고민들이 붙는 법이니까.

그런 학생들은 잠깐 몇 분만 이 글에 투자해주길 바란다.

전쟁하러 갈 때 가더라도, **어느 정도는 적을 알고 가야 하지 않겠는가.**

독학사가 어떤 것인지, 시험 날짜가 어떻게 되는지와 같은 행정 정보는 이 글에서는 다루지 않고, (그건 인터넷을 검색해보도 바로 나오고, 독학사 책에도 있다.) 실제 시험에 어떤 것들이 나오며, 난이도가 어떻게 되는지, 공부를 당장 무엇부터 시작해야 하는지에 대한 **정보 겸 조언**만을 다룰 것이다.

독학사는 **총 40문항으로 출제** 되고 있다.

몇 년 전까지 있었던 Hell 난이도의 주관식 파트가 현재는 없다는 점에서 중, 하급의 영어 실력을 지닌 학생들에겐 희소식이라 볼 수 있다. (모르면 어떻게든 찍기로라도 1단계를 통과하라는 관계자들의 배려 아니고 뭐겠는가?)

그러니, 부디 쫄지 말자! 주관식도 없어졌고 객관식 문항도 40문제로 많아졌으니 우리에게 합격의 문이 더 넓어진 셈이다.

그럼 본격적으로 각각의 파트별의 출제 포인트와 난이도에 대해서 말해보겠다.

독학사 1단계 문제 자체의 난이도는 그렇게 높지는 않다.

보통 **수능 정도의 난이도 혹은 그보다 더 낮은 난이도로** 출제되기 때문에 학점을 받으려는 학생들은 반드시 1단계에서 통과를 해야만 한다. (물론 2,3단계를 봐야 하는 학생들도 있지만, 어쨌든 가장 쉬운 1단계에 합격하지 못하면 2, 3단계는 엄두도 못 낼 것 아니겠는가?)

1단계 합격 커트라인은 100점 만점에 60점이다. 그러니 다시 한 번 말하지만 **어렵지 않다.**

(100점 맞을 필요 뭐가 있나? 60점만 맞아도 다 같은 합격인데)

2022, 2021년의 기출을 토대로 각각을 파트별로 나눠 정리를 해 보면, 다음과 같다고 말할 수 있다.

어휘 관련 문제가 합격을 좌우 할 것이다.

일반적인 어휘 문제는 문장에서 한 단어에 밑줄을 긋고 **동의어를 고르는 문제**의 형식이지만, 독학사에서 어휘 문제는 동의어를 묻는 문제보다는 **아예 빈칸으로 만들어 해석상 들어가기 가장 적절한 것을 묻는 논리형 문제(= 수능 빈칸 문제)**로 출제되었다.

이 논리형 문제는 해석도 잘해야 하고, 해석에 따른 맞는 단어도 고를 줄 알아야 하므로 난이도가 일반적으로 동의어를 고르는 어휘 문제보다는 높다. **(열심히 한 학생들과 그렇지 않은 학생들이 여기서 갈릴 것이다.)** 그러나 그마저도 **수능 수준의 독해력과 수능 수준의 어휘력**만 있다면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다. 출제 빈도가 높으므로 반드시 잡고 가야 하는 부분이다. 즉, 영어를 못하는 학생이라면 먼저 어휘부터 열심히 암기하도록 하자.

다시 한 번 말하지만, 어휘의 수준은 **고등학교 수능 수준**을 웬만하면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고등 영단어만 잘 외워도 clear할 수 있을 것이다. **(성실하게 공부하면 다 통과한다는 불변의 진리)** 숙어 문제도 가끔 나오긴 하지만, 그걸 맞추기 위해 모든 숙어를 암기하느니 차라리 틀리고 넘어가는 것을 추천한다. **(그걸 외우는 시간에 다른 단어를 더 외우자)** 명심하라. 1단계 커트라인은 60점이다. 100점 맞을 공부도 좋지만 일단 **합격하는 방향으로 공부를 하자.**

문법은 매년 비중이 바뀌는 추세이다. 2021년에는 14문제로 가장 많이 나왔지만, 2020년에는 8문제로 세 번째로 많이 나왔다. 뭐, 어쨌든 다른 파트에 비해 많이 나오는 편이긴 하니까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한다는 점은 변함없다. 더군다나 **해석을 정확히 하기 위해서는 문법의 기초가 필수이므로 해석에 필요한 문법 공부를 하는 것도 또한 중요**하다.

다만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다면, 2021, 2022년 문법이 거의 전 범위에서 나왔다는 점이다. 우리는 시간상의 여유가 없는 편이기 때문에 문법을 전부 공부해서는 안 된다. **(억지로 모든 부분을 다 공부한다고 해도 그걸 다 기억하지도 못한다.)** 그러므로 독학사 문법공부의 핵심은 **모든 문법을 다 공부하려 하지 말고, 나올 수 있는 문법 부분만 그냥 암기하는 것이다.**

다시 한 번 말하지만, 문법 범위가 매우 넓어서 하는 말이다. (모든 문법적 사항을 다 암기하고 공부하는 것은 편입 준비할 때 하자.)

당연히 암기가 잘 된 학생들에게는 상당히 쉬운 난이도로 문제가 출제되니 겁먹을 필요는 없다.

즉, 영어를 못하는 학생은 '기본'적인 영어에 중점을 두고 공부하자.

토익 **600점을 목표로 할 때 배우는 문법적 지식만** 있어도 대부분의 문제들은 풀 수 있다.

독해는 세 part 중에서는 평균적으로 가장 문항수가 많다. 문항수가 많다는 것은 **읽어야 할 지문의 수도 많아진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결국 시간 내에 풀 수 있는지가 관건**이다. (영어 해석은 곧잘 하지만 속도가

느려서 항상 시간에 쫓겼던 학생들은 조심하자!

40문제에 50분밖에 시간이 없다는 점은 분명 수험생들에게 압박이 될 것이다. 하지만, 독해의 수준 자체는 수능에서도 쉬운 수준의 난이도이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진 않을 것이다.

독학사 1단계의 독해를 해결할 때, 2가지만 제대로 준비하고 가자.

1. 어휘는 반드시 적어도 고등학교 수준까지는 외우고 시험 볼 것.
2. 너무 늦게 해석하는 버릇을 고칠 것.

이 두 가지만 스스로 통제할 수 있다면 절대 어렵지 않은 시험이 될 것이다.

마지막으로 독학사 1단계에서는 **생활영어**도 출제가 된다. 한, 두 문제 정도 출제될 정도로 비중은 적다.

난이도 역시 독학사 1단계에서의 생활영어는 **단순히 앞 문장의 대화를 이해했느냐의 문제로 출제**되는 편이다. 만약 이와 같은 방식으로 올해도 출제된다면 가장 쉬운 파트가 될 것이라 예상한다.

마지막으로 읽글에 대해 결론을 내자면...

독학사 1단계는 **어휘만 제대로 알고 있어도** 빈칸추론과 독해 파트에서 **고득점을 맞을 수 있는 수준**으로 출제가 된다. 문법 역시도 어렵게 느껴질 뿐 실제로는 쉽다. 그냥 본인이 실력이 없고 잘 모르니까 쉬워도 토 나올 것 같은 거다.

절대 극악의 난이도로 나올 일이 없다는 점 명심하고 **만약 본인이 영어 실력이 정말 최하 수준이라고 생각되면 다른 거 필요 없다. 단어부터 하자.**